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결과

유 성 필 / TTA 표준화본부 표준지원부

1. 개요

TTA와 특허청은 2003년 5월 13일(화) TTA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홍보하여 지적재산권자의 표준화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적재산권 조기 공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유수의 지적재산권 전문법률회사인 Pennie & Edmonds LLP(www.pennie.com)에서 특허전문변호사들이 미국의 특허제도 및 쟁점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으며, 국어도 통역이 되어 영어에 취약한 참석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산업 관련업체 등에서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2. 세미나 내용

이 세미나는 I&S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철희 변

리사, 특허청의 박정식 서기관 및 Pennie & Edmonds LLP의 Scott Stimpson 변호사 등 모두 7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였으며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철희 변리사)

특허제도 및 표준화제도 소개, 지적재산권의 분류, 특허와 표준에 대한 상반된 주장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소개 하였으며, 상반된 주장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표준화기구의 특허정책(ETSI, ANSI, ISO/IEC, ITU-T, JEDEC, TTA)을 소개하였으며, 이들 기구들은 공통적으로 특허가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허여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제도 개론(특허청, 박정식 서기관)

지식재산권의 의의, 지식재산권의 특징, 지식재산권 보호법제, 특허제도, 특허요건, 특허권, 실시권,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대항, 실용신안, 실용신안 선등록 출원 및 처리절차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특허청, 김연환 사무관)

21세기 경제환경의 변화, 지식재산권 취득시의 장점, 산업재산권 4권리의 개념, 특허, 실용신안의 비교, 의장, 상표의 비교, 발명의 개념, 특허의 출원등록 절차, 우선심사제도, 청구범위 작성요령, PM(특허지도)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라. Focus On United States Patent Litigation(Pennie & Edmonds LLP, Scott Stimpson 변호사)

미국에서의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고의에 의한 특허 침해(wilful infringement)와 관련한 쟁점(변호사비용의 배상 등), 특허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 고의 침해의 결정방법, 침해자가 특허권을 고의에 의하여 침해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의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의 수렴(clearance opinion), 고의침해와 관련된 법정에서의 전략을 소송전의 증거발견절차(discovery)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과 관련된 전략을 설명하였다.

마.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s Meet United States Patent Law(Pennie & Edmonds LLP, Frank Morris 변호사)

표준 제정기관인 IEEE의 멤버로서 표준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미국에서의 해결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ITU, ETSI, IEEE의 특허정책을 간단히 설명하고, 둘째, 표준 제정과정에서 표준과 특허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쟁점, 예컨대 특허의 공개의무가 표준 제정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개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지, 참여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특허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허여된 특허나 출원중인 특허 또는 재허여특허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필수적인 특허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표준과 관련되는 특허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등의 쟁점을 설명하였다. 셋째, 특허권자와 그 특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을 실행하려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사용허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게 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과 관련하여 미국의 케이스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넷째, 표준 제정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미국의 케이스, 곧 Stambler 케이스, Dell 케이스, Wang Laboratories 케이스 및 최근의 케이스인 Rambus vs. Infineon 케이스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한 청문회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바. Patent Procurement Drafting A Patent Application(Pennie & Edmonds LLP, 문예실 변호사)



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발명의 배경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항, 관련된 선기술을 언급하지 말 것, 발명의 배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둘째, 청구 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케이스(Johnson & Johnston v. R.E. Service Co.)를 설명하였다. 셋째, 청구 항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케이스(Gentry Gallery, Inc. v. The Berkline Corp.)를 설명하였다. 넷째,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기능식 청구 항(mean plus function claim)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102조 (e)항이 2002년에 개정되었다는 것과 그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사. 암호 및 전자서명 기술(특허청, 정용주 사무관)

정보보호기술 정의, 주요 암호기술의 종류, 전체 출원동향(국가별, 기술별), 출원인 현황(미국, 일본, 유럽, 한국), 암호, 공개키암호 국가별 출원동향, 향후 특허기술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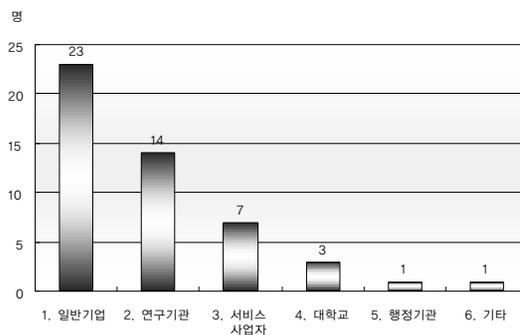
3. 세미나 결과

본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 조사 등을 위하여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세미나 참여자는 110명이고, 설문조사 응답자는 45%인 4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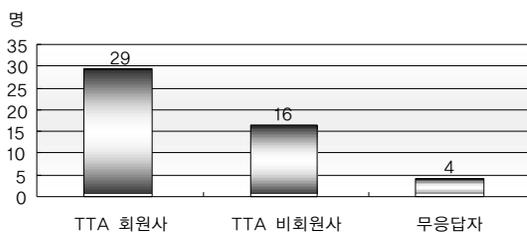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세미나 참여자의 업종 및 교육 참가자의 TTA 회원사 여부

이번 세미나 참여자의 업종으로는 일반기업이 가장 많은 참여를 했고 연구기관, 서비스 사업자, 대학교 순으로 나타났고 TTA 회원사가 전체 응답자의 59%인 29명으로 TTA 회원사이면서 일반기업에서 많은 참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세미나 참여자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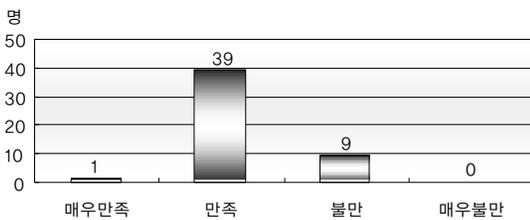
[그림 2] 교육 참가자의 TTA 회원사 여부

나. 본 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

본 세미나에 만족을 선택한 참석자는 82%인 40명으로 참석자 대부분 이번 세미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지적재산권과 표준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리에 도움, 국제시장 진출시 고려되어

야 할 사항 제시, 외국의 지적재산권과 표준과의 충돌 사례 설명을 들었으며, 불만선택 이유로는 시간분배의 아쉬움, 현실적 내용이 부족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은 이철희 변리사의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특허변호사들이 발표한 미국의 표준화와 특허제도를 꼽았으며, 특허청의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표] 유익한 프로그램

구분	인원(명)	비율
1. 정보통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19	38.8%
2. 미국의 표준화와 특허 제도	16	32.7%
3.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8	16.3%
4. 지적재산권 제도 개론	6	12.2%
5. 암호 및 전자서명 기술	0	0.0%
총계	49	100.0%

이번 세미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준화와 IPR에 대한 기초 및 고급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의 검토가 필요하며, 커리큘럼 구성시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고려되어야 하며, 홍보측면에서도 E-mail 마케팅 등 홍보 방식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감사메일을 발송했으며, 사후 관련교육 일정 홍보를 통한 참가자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다. 

UWB포럼 공식 출범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새로운 전파통신기술인 UWB(Ultra-Wideband: 초광대역)의 사업화를 모색하는 한국UWB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4월 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UWB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포럼 초대의장에 박노병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연구소장(부사장)을 선출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UWB포럼은 UWB 무선기술의 국내외 표준동향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의 제도 정비 및 산업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통부 지원아래 공식 발족됐으며 주파수이용 및 제도분과위원회에는 윤영중 연세대학교수, 기술개발 및 표준화 분과위원회에는 이형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자원연구팀장, 사업모델개발분과위원회에는 이성수 삼성종합기술원부장을 선임했다. UWB포럼은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UWB 기술세미나와 UWB칩셋인 미국의 엑스트림스펙트럼사의 크리너티 칩셋으로 구성된 UWB 장비를 사용해 기존의 IEEE802.11a와 802.11b제품,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같은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간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시연, 홈네트워킹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줬다.